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二)

跛龔生

다시 말하면 物의 變化로 말미암아 物質은 消滅□아니하되 그 物의 從來의 技能은 物이 變化함과 함께 消滅하는것은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體現하는바 이닌가. 그 理하야 物은 有가 有를 생하고 技能은 無가 有를 생하는것이니, 그러므로 自然作用으로 해서의 技能은 卽 理는 物인 形體의

屬性 이오. 그와 同時에 그 理는 언제나 一陰一陽의 卽 一動一靜의 作用에 依하야 表現된다.

그리 하야 物은 物質이 集合하야 形成되고 그리함으로서 말미암아 物은 從來의 技能을 바라거니와 이로써 보건대 技能은 創造이지만 物質은 創造가 될수없다.

그리고 周易思想의 物은 그 形體의 中心으로 비릇 하야 그 技能을 두 가지로 表現하고 잇으니 하나는 得이오. 다른 하나는 失이다. 卽 時間이 進行함과 함께 萬物은 從來의 □과 質을 保存치 못하야 或은 量으로 得하지안흐면 失하고 또 或은 質로 進하지안흐면 退한다.

그런데 周易에 잇어서는 物이 量으로 得함도 또 質로 進함도 陽이라 하고

그와 反하야 量으로 失함도 質로 退함도 陰이라 하였다. 그리 하야 陽은 動으로 陰은 靜으로 代稱하야 退와 止의 義가 混同되고 또 量과 質의 義가 混同되었는데 그 까닭에 後人은 陰陽의 神秘性を 案出하고 또 그러한 陰陽의 神秘性으로써 道의 神秘性を 假裝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陰陽의 神秘性を 暴露치 안흐면 道의 神秘性を 闡明할 수 없고, 또 道의 神秘性を 克明치 안흐면 易理는 術家の 道具로부터 救出할수없다.

그리고 所謂一理萬殊이오. 또 萬殊一理라함은 生의 原理를 말한 것이 어니와 『一陰一陽之謂道』라 함은 道의 神秘性を 잘 暴露하였다. 그래서 程子는 『一陰一陽之謂道, 道非陰陽也, 所以一陰一陽者道也, 如一開一闔, 爲之變』이라 하였다. 卽

程子 의 道는 一闔一開하는 技能을 이룸이오. 또 陰陽은 그의 一闔一開하는 容態를 이룸이니 여기서는 陰陽의 神秘성은 勿論이오. 道의 神秘性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程子は 다시 『一陰一陽之謂道, 此理, 固深說則, 無可說, 所以陰陽者道, 卽曰, 氣則便有二, 爲開闔, 便是感, 卽二則, 便有感, 所以開闔者道, 開闔便是陰陽, 老氏言, 虛而生氣, 非也, 陰陽開闔, 本無先後, 不可道, 雖有陰陽, 便無道, 所以陰陽者, 是道也, 氣是形而下者, 道是形而上者, 形而上者則, 是密也』라 하였는데 程子の 『老氏言, 虛而生氣, 非也』라 하여 老子의 虛無思想을 指彈 한 것은 太極觀念을 支持하는 正統的

儒敎 思想의 表現이지마는 『陰陽氣也, 氣是形而下者, 道是形而上者, 形而上者則, 是密也』라 함은 너무도 相忽한 □□이다.

그리고 『氣是形而下者이면 氣卽器가 되어 原文의 『形而下者, 謂之器』의 器는 形體로서의 器가 아니오. 容態로서의 氣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形而上者則, 是密也』라 하니 密의 字義는 어떠한 解釋하여도 道의 義보다 器이거나 或은 氣의 意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朱子は 『陰陽 迭擇者, 氣也, 其理則, 所謂道, 又曰, 一陰一陽之謂道, 陰陽何以謂之道, 當離合看, 一陰一陽之謂道則, 陰陽是氣, 不是道, 所以陰陽者, 非道, 理則一, 而其形者則, 謂之器, 不形者則, 謂之道, 然道, 非器不形, 器非道不立, 義陰陽亦器也, 所以陰陽者道也, 是以一陰一陽, 往來不息, 而聖人指是, 以明道之全體也』라 하였는데

朱子 의 『陰陽是氣, 不是道義陰陽亦器也云云은 勿論 위에서 말한 程子說을 敷衍한 것이니, 여기서 再論할 必要가 없거니와 『理則一, 而其形者則, 謂之器, 不形者則, 謂之道』라 하니 그러면 道는 理의 器와 形不形으로 對蹠한 者가 되 지아니 할 수가 없고 또 朱子は 道와 太極을 論함에 當해서는 『道是太極이라 하였으니 따라서 太極은 □로서 器와 對蹠한 理의 『屬性이되□ 所謂太極의 一開一闔說은 그리와 같은 太極으로서의 天地人三才□은 그 根底로부터 破壞되지 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 하여 程子가 『非也』라 한 □의 □而生氣說은 朱子에와서 □傳道者를 發見하였다하여도 過分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朱子は 『陰陽迭聞者, 氣也□理則, 所謂道라 하고 또』 不形者則, 謂之道』라 하여 理의 實體는

勿論 이오. 氣의 實體까지도 闡明치 아니 하였으니, 일즉 蘇東坡의 陰陽非勿論을 非難한 朱子の 『陰陽是器』라는 陰陽量物質論은 果然 그 神秘性을 □提할수없다.

그러나 程, 朱二子は 우에서 □學한 『形而上者를 謂之道이요. 形而下者를 謂之器이요. 化而裁之를 謂之變이요. 推而衍之를 謂之通이□學而措天下, 民을 謂之事業이라』 고한 經文을 註解함에 있어서는 形上形下에 對한 卽道와 器에 對한 觀念이 周易思想의 實體觀念을 거이 彷彿하였다. 그리고 『形而上者를 謂之道』라 함은 乾坤의 乾을 天에 擬하여 天道를 이룬 것이요. 『形而下者를 謂之器』라 함은 乾坤의 坤을 地에 擬하여 地德을 이룬 것이니, 그것은 上으로 天時와 下로 地德이

前者 는 □始하고 後者는 □生하여 萬物의 生生을 實現함을 論한것이다.

그리고 蘇東坡는 『天地一物也, 陰陽一器也, 或爲象, 或爲形, 所在之不同, 故云, 在者明其一也, 象者形之精華, 發於上者, 形者象之實體, 留於下者云云』라 하였는데, 元來 東坡는 陰陽非物論者이니 저의 『陰陽一氣云云』의 『氣』는 物의 態이거나 或은 勢를 意味한말이 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象은 精華이요. 形은 象의 實體라하여 前者는 上에서 發하고 後者는 下에 留한다함은 『在天成象하고 在地成形이다』 한 周易의 本義를 잘 究명한 말이 어니와 朱子는 『在天成象』의 『象』은 日月星辰之闔이요. 『在地成形』의 形은 『山川動植之屬이라하였으니 저의 陰陽物質論의 根底가 이에 잇음을 알 수 있다.